9급 지방직(방재안전직) 기출문제 해설[B책형] : 국어

-2014년 10월 11일 시행/한국소방사관학원 제공-

※ 방재안전직 기출문제 **첨부파일 다운**
※ 방재안전직 영어 **기출문제 해설 동영상 하단 참조**

01 **[정답] ①**

[해설] 예시문의 '보다'는 동사로 ①의 뜻입니다.
② 일정한 목적 아래 만나다. 예) 맞선을 보다.
③ 맡아서 보살피거나 지키다. 예) 그녀는 아이를 봐 줄 사람을 구하였다.
④ 상대편의 형편 따위를 헤아리다. 예) 그의 사정을 보니 딱하게 되었다.

02 **[정답] ③**

[해설] 척박하다-땅이 기름지지 못하고 몹시 메마르다.

03 **[정답] ①**

[해설] 어미의 일부인 '-ㄴ지, ㄹ지(막연한 의문)'는 붙여 쓰지만(후행 서술어가 '알다, 모르다'류로 제한됨),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서 '경과한 시간'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지]는 띄어 쓴다.

04 **[정답] ④**

[해설] 뵈(다)+어요>봬요
① •늘리다 - 타) 본디보다 부피를 크게 하거나 수를 많게 하다.
예) 바짓단을 늘리다./ 학생 수를 늘리다/시험 시간을 30분 늘리다./ 실력을 늘려서 다음에 다시 도전해 보아라./ 살림을 늘리다./ 쉬는 시간을 늘리다.
•늘이다 - 타) ㉠본디보다 더 길게 하다. ㉡ 아래로 처지게 하다.
예) 고무줄을 늘이다./엿가락을 늘이다./주렴을 늘이다.
② •부치다

자) 힘이 모자라다. 예) 그 일은 힘에 부친다.
타) ㉠ 부채 같은 것을 흔들어서 바람을 일으키다.
㉡ 논밭을 다루어 농사를 짓다.
예) 부쳐 먹을 내 땅 한 평 없다.
㉢ 번철에 빈대떡·전 등을 익혀서 만들다.
예) 계란을 부치다. / 어머니가 부엌에서 빈대떡을 부치고 계신다.
㉣ 남을 시켜서 편지나 물건을 보내다.
예) 편지를 집으로 부치다. / 짐을 외국으로 부치다.
㉤ 다른 장소·기회에 넘겨 맡기다. 회부하다.
예) 인쇄에 부치다. / 공판에 부치다.
㉥ 어떤 처리를 하기로 하다.
예) 불문에 부치다. / 비밀에 부치다.
㉦ 몸이나 식사를 어떤 곳에 의탁하다.
예) 삼촌 집에 숙식을 부치고 있다.
•붙이다 –'붙다'의 사동사
㉠ 서로 맞닿아서 떨어지지 않게 하다.
예) 봉투에 우표를 붙이다.
㉡ 교합시키다.
㉢ 불을 다른 곳으로 붙게 하다.
예) 연탄에 불을 붙이다./담뱃불을 붙이다.
㉣ 딸리게 하다. 예) 아이에게 가정 교사를 붙여 주다.
㉤ 노름·싸움 등을 어울리게 하다.
예) 주인과 손님을 흥정을 붙이다.
㉥ 마음에 당기게 하다. 예) 공부에 흥미를 붙이다.
㉦ 손바닥으로 때리다.
예) 상대편의 따귀를 한 대 붙이다.
㉧ 이름을 지어 달다.
예) 한글 이름을 수출 상품에 붙이다.
③ 'ㄹ게'어미는 된소리로 발음되더라도 예사소리로 적는다. 단 의문형일 때는 된소리로 적는다. ㉮ 집에 갈까?

05 **[정답] ④**

[해설]
① •박이다
㉠ 버릇, 생각, 태도 따위가 깊이 배다.
예) 주말마다 등산하는 버릇이 몸에 박여 이제는 포기할 수 없다. / 선생티가 박인 삼촌은 언제나 훈계조로 말한다.
㉡ 손바닥, 발바닥 따위에 굳은살이 생기다.
예) 마디마디 못이 박인 어머니의 손. / 나는 큰 빗과 작은 빗, 면도칼 따위를 잽싸게 바꿔

들며 움직이는 이발사의 굳은살 박인 손을 바라보았다.≪오정희, 유년의 뜰≫
•박히다
㉠ 물건이 다른 물건 속으로 들어가 꽂히다.
예) 벽에 박힌 못을 빼내다. / 창이 그의 가슴에 박혔다.
㉡ 인쇄물이나 사진이 박아 지다. 찍히다.
예) 책이 박혀 나오다.
② 인구가 높아졌다.→인구가 많아졌다.
③ 염두해 두어야 한다.→염두에 두어야 한다.
④ ·졸이다 : 조마조마하여 애쓰다(걱정)
예) 마음을 졸이다.
·졸리다 : 자고 싶은 느낌이 들다. / 남에게 시달림을 받다 / '조르다'의 피동
예) 인질이 범인에게 목이 졸린 채 위협을 받고 있다. / 빚쟁이에게 졸리다. / 외상값에 졸리다.
·조리다 : 생선·어육 따위를 양념하여 바특하게 끓이다(요리)
예) 생선을 조린다. / 통조림, / 병조림

06 **[정답] ②**

[해설] 예시문의 '벌어지다'는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진행되다.'의 뜻으로 ②와 가까운 의미이다. ① 사람의 사이에 틈이 생기다. ③ 차이가 커지다. ④ 음식 따위를 번듯하게 차리다.

07 **[정답] ③**

[해설] 견우와 직녀 설화를 소재로 하여 이별을 사랑을 위한 밑받침으로 받아들이며 재회를 기약하는 노래이다. 견우를 화자로 설정하여 직녀에게 이별을 긍정하고 그 의미를 말하는 데서 사랑의 참다운 의미가 구체화 되고 있다. 시의 초반부에서 화자는 이별의 고통을 이겨내야만 보다 성숙되고 완전한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이러한 이별의 의미를 알고 만남을 위해서는 현재의 자신의 생활에 충실하면서 그리움을 정성스럽게 키워 가야 한다고 노래하고 있다. 한국적인 기다림의 정서를 바탕으로 사랑과 이별의 의미를 역설적으로 노래하며 참된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작품이다.

08 **[정답] ①**

[해설] '거울'의 의미 : 이 글에서 거울은 '흐린 거울'과 '맑은 거울'로 구분하여 제시되는데, 그것은 각각 거울을 이용하는 사람의 '못생긴 얼굴'과 '잘생긴 얼굴'에 대응되어 있다. 그리고 작중 화자는 '못생긴 얼굴'의 주인공으로 '흐린 거울'을 애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거울은 작자가 반려로 삼고자 하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작자가 나아가고자 하는 세계, 또는 작자를 인정해 주는 어떤 대상일 수도 있다. 누구나 사람의 본성은 맑고 깨끗하지만, 세상의 먼지와 티끌이 끼어 그 본성이 흐려진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09 **[정답] ③**

[해설] 소화성 궤양은 오랫동안 인류의 가장 흔한 질병들 중 하나였고, 스트레스와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생긴다고 첫째 단락에서 제시되고 있다.

10 **[정답] ①**

[해설] 이 글의 주장은 다이어트가 자신감을 형성해 준다는 것이므로 그 반론은 ①이다.

11 **[정답] ③**

[해설] 절대절명→절체절명('궁지에 몰려 살아날 길이 없게 된 막다른 처지'를 뜻하는 말은 '절체절명(絶體絶命)'입니다. '절대절명'은 잘못된 말입니다.)
① 막역하다-허물이 없이 아주 친하다.
② 야밤도주(×)→야반도주(남의 눈을 피하여 한밤중에 도망함)
④ '몹시 어려운 지경'을 비유하는 말은 '삼수갑산'입니다. 함경도에 있는 삼수(三水)와 갑산(甲山)이 지세가 험하고 교통이 불편하게 가기 어려운 곳이라는 뜻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12 **[정답] ④**

[해설] ④는 형용사 '많다'에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 관형사의 형태를 가졌지만 관형사가 아닌 형용사이다. 나머지는 관형사이다.

13 **[정답] ④**

[해설] ①, ②, ③은 번역투의 문장이다.
① 그 사람은 선각자에 다름 아니다.→그는 선각자와 다름이 없습니다.
② 그의 작품은 이러한 주목에 값한다.➡ 그의 작품은 주목할 만하다.
③ '~에 있어서'는 일본어를 직역한 것이다. 이 표현은 국어에 널리 퍼져 있는데 이 표현이 들어가는 문장은 대개 '~에서 / ~에'로 고쳐도 별 문제가 없다.

14 **[정답] ④**

[해설] ④ 遡及(소급)-과거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미치게 함.
① 看做(간주)-상태, 모양, 성질 따위가 그와 같다고 봄.
② 捺印(날인)-도장을 찍음

③ 明晳(명석)-'명석하다(생각이나 판단력이 분명하고 똑똑하다)'의 어근

15 **[정답] ②**

[해설]
② 곡학아세(曲學阿世)-학문을 왜곡하여 세속에 아부함.
① 교학상장(敎學相長)-가르침과 배움이 서로 진보시켜 준다는 뜻으로 사람에게 가르쳐 주거나 스승에게 배우거나 모두 자신의 학업을 증진시킴
③ 조삼모사(朝三暮四)-눈앞에 당장 보이는 차이만을 알고 결과가 똑같은 것을 모름. 똑같은 것을 가지고 어리석은 자를 우롱하는 임시변통의 사기술. 옛날 송(宋)나라 저공(狙公)이 여러 원숭이에게 상수리를 아침에 세 개, 저녁에 네 개씩 주겠다고 하자 원숭이들이 성을 내는 것을 보고 아침에 네 개, 저녁에 세 개씩 주겠다고 하니 원숭이들이 좋아했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
④ 지록위마(指鹿爲馬)-윗사람을 농락하여 권세를 마음대로 휘두르는 짓을 이르는 말. 또는 모순된 것을 우겨서 다른 사람을 속이려는 짓. 옛날 중국 진(秦)나라 때 조고(趙高)라는 간신이 있어, 황제 호해(胡亥)에게 사슴을 바치며 말이라고 강변했다는 고사에서 유래함.

16 **[정답] ④**

[해설] 불편한 점이 계시면→불편한 점이 있으시면('계시다'는 직접높임에 '있으시다'는 간접높임에 쓰는 말이다.)

17 **[정답] ②**

[해설] 이 작품은 연암의 초기작 가운데 하나로 조선 후기 양반들의 경제적 무능과 허식적인 생활 태도를 폭로하고 비판한 한문 소설이다. 작자는 신분 질서가 문란해진 조선 후기를 바탕으로 해서, 양반이라는 특권 계층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양반이 양반답지 못한 현실을 개탄하고 있다. 첫 번째 양반 문건에 규정된 엄격한 준수 조항은 형식과 가식에 얽매여 꼼짝도 할 수 없게 된 양반 사류(士類)의 모습을 희화화(戱畵化)하였고, 2차로 작성된 문건은 양반들이 자행한 작폐를 보여 줌으로써 양반 사회의 비행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을 통해 양반 사회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관점은 보이지 않는다. 양반의 경제적 몰락을 풍자하면서도 양반이 진취적인 지식인으로 거듭 나기를 촉구하고 있다.

18 **[정답] ②**

[해설] 마지막 단락 마지막 문장에서 중심문장을 찾을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에 상황의 힘을 거부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뛰쳐나갈 수 있는 본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19 **[정답] ②**

[해설](가)에서는 빈부 격차 현상이 심화된 원인에 대해서 논하고 (나)에서는 그 해결책을 말하고 있다.

20 **[정답] ②**

[해설] 서양의 유토피아도 초기에는 동양의 복고적 의식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① 동양의 유토피아는 순환 사관에 입각하여 상실한 시대로의 복귀를 꿈꾸는 것이 특징이다.
③ 모어의 유토피아는 인간 의식이 종교적 권위로부터 벗어나 독자적인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부터라고 말하고 있다.
④ 서양의 유토피아(모어의 유토피아)는 과학에 대한 낙관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출처] 10월 11일 방재안전직 기출문제 해설: 국어|**작성자** 소방사관